

# 가작

강영빈(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 렌주룰

공평해지기 위해 룰을 세웠대  
두 사람은 번갈아 돌을 놓으며 길을 만든다

대각선을 막고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한 사람이 다섯 개의 돌을 줄지어 놓는데 성공한다

언제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몰랐어

시옷 모양을 먼저 두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것  
사람이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양  
짝대기 두 개가 서로에게 기대는 채 그때부터 운명이 시작되는 거라고

이기고 진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며 돌을 정리한다

이번엔 내가 검은 돌이야  
이번엔 내가 흰 돌이네

거실에서는 돌을 놓는 소리만 들린다 숨을 고르며 가능성 있는 미래를 전부 살펴보는 일  
창틈으로 어둠이 새어드는 것을 모르고

한 사람이 이기면  
꼭 다른 한 사람은 지게 되는 수순

검은 돌을 잡은 사람이 더 많은 승리를 가져간다  
이상해, 의문을 가진 두 사람은  
끝없이 대국을 재개하고

정말이네, 그렇게  
그래도 괜찮을 거야, 검은 돌을 번갈아 가지면 되는 거니까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대국을 멈추고  
한 사람은 쌀을 씻고 한 사람은 국을 끓인다

식탁 위 전등이 깜빡, 깜빡  
흰 돌과 검은 돌을 번갈아 비춘다

## 터널

마을을 떠나는 동안 어둠이 온다 버스는 고요 속에 잠긴 눈동자로 가득하고 차창으로 뛰어드는 눈발을 바라보며 마음에도 빗금이 내리는 것 같은

긴 터널을 통과하자 시간이 정지된 터미널이 나왔다 도로를 달릴 땐 나란하다 믿었던 버스들이 미리 도착해 있고

광장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눈사람의 행렬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있었다 우리가 눈사람을 만드는 이유는 뭉쳐진 눈송이가 가장 마지막에 녹기 때문일 텐데

형태를 바꾸었을 뿐인데  
눈사람을 사람처럼 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마을을 떠난 곳에서도 하얗게 떠오르는 입김이 가득했다 의도 없이 마음이 태어나서 눈송이로 내리는 것 같다 아무도 모르게 밤은 또 오겠지만

광장이 밝아질 때 불을 꺼놓은 거실의 어둠이 부풀고 있다면  
그건 모두가 이곳에 나와 있기 때문이겠지

신발 끈이 풀린 채 행진하는 눈사람의 대열 속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다른 마을로 떠나는 버스와 마을로 진입하는 버스가 교차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이 순환하며  
광장은 비어가고 또 채워지고 있었다

점점 길어지는 긴 터널의 끝  
우리는 그곳까지 걸어가며 겨울에 피는 꽃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는 밤의 계절에 대해

흰빛이 거대한 눈동자처럼 보일 때 우리가 떠난 마을의 굴뚝에서 수증기가 솟아났다 대로변에 자라난 무수한 나무의 풀잎 안에서 새들의 지저귐 들려오고

닿을 수 없는 미래처럼 여겨지더라도  
여름날 눈사람을 생각하면 땀이 나는 것 같았다

## 여행자를 위한 서재

이곳에 들어오려면 당신의 책이 필요합니다 서재의 주인이 책에 메모지를 붙였다 당신의 서재는 빛이 잘 들어서 커튼을 쳐두어야 합니다

나는 서재의 구석에 앉아 떠나온 곳의 사람들을 떠올렸다 어떤 사랑은 험거운 신발 같아서 뒤꿈치가 까졌다 친구에게 선물하면서 너는 그걸 신고 먼 산책을 갔다 와, 그렇게 말하곤 혼자

여행하였다 주인공이 없는 불분명한 행간들 내용물이 쏟아질 것처럼 흔들렸으나 동심원을 그리는 찻물을 바라보기만 하다가 여행이 끝나버리면 어찌지 생각하다가

책장 맨 아래에서 연기가 피어 나오고 있었다 바깥에는 모래사장이 펼쳐질 것이고 파도에 발가락을 적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끝이 없는 일기를 쓰며 떠나온 것으로 여행은 충분하다고 말하는 화자도 있을 텐데

배경처럼 주인이 들어와 목차를 바꾸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분명 이야기가 뒤섞일 거예요 인물들이 영영 길을 헤매면 어떡하죠, 그러면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고 어긋난 순서에 적응하면 전부 새것처럼 보였다

커튼을 펼치자 보이지 않던 먼지가 일렁였다 창문에는 내가 아닌 사람들의 손자국이 묻어 있고 잉크처럼 캄캄한 파도가 펼쳐졌다

나는 나를 덮고 바다의 기분을 살피며 책의 마지막 장을 생각했다 밤이 올 때까지 마지막이 생각나지 않아서 여행의 끝을 자꾸 미루며

주인을 찾아 서재를 나왔다 주인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건물은 거울의 뒷면처럼 고요했다 내가 비치지 않는 너머의 풍경이 거기 있는 것 같았다

## 동명

이름이 같을 뿐이에요  
좋아하는 음악이 달라서 이어폰을 나눠끼는 사이는 아니고

글자만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다른 글씨체를 재미있다 생각하며  
해는 기울어갑니다

지금 우리 낮을 지나고 있지요  
지구 반대편에는 어둠이 흐르고 있으니

먹어 보지 않은 음식까지 풍성하게 차린 식탁에서  
서툰 젓가락질로 손을 멀리 뺐어요

이건 이름이 뭐야?  
우리나라에도 있는 음식 같네  
신기하다 그치?

정말 신기한 건 비행기에서 내릴 때  
낮에서 낮으로 옮겨 앉은 것 같은 순간  
다른 나라에서 익숙한 지명을 발견할 때

사랑을 발음하는 다양한 언어의 목소리  
하나같이 정말 사랑 같아서

당신의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궁금해요  
어떤 박자로 세계의 낙차를 표현하는지

슬플 땐 어느 강을 따라 산책하는지  
그 강이 여기까지 흘러온다면

지구는 범람하는 슬픔으로 가득차겠죠  
둥둥  
해파리처럼

해파리로 만든 음식이 그곳에도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 곡두

랜덤으로 듣는 첫 음악이 한해를 점친다는데 너에겐 어떤 음악이 깃들었니

종소리를 듣기 위해 이렇게 긴 행렬이 생긴다 처음 보는 얼굴들 사이 너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이해서

안쪽에서 맴도는 아주 오래된 소문처럼 스스로 붉어졌던 적 있어

떨어진 열매를 피해 발을 옮기다가 으깨진 미래를 목격할 때마다 속으로 부르곤 했던 음악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은 어디에도 깃들지 못해 허공에서 잠든다는 것 투명한 망토를 휘감고 울고 있다는 것

스피커에서 모르는 언어의 노랫말이 흘러나오네 밤은 아직 춥고 부드럽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숫자를 세는데

나는 아직 거기 있어 무성영화가 재생되는 길고 긴 장면들을 지나

종종 발밑을 굴러다니는 영혼을 피해 멈추어 서거나 아무도 없는 골목을 자꾸 돌아보기도 했어